

제주정가 '양대 선거' 필승전략 분주

민주당·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분주
 지방정가는 조직정비·당원 확보 등 선거 채비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 레이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정가의 경우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제주지사 선거 등 지방선거 준비에도 서두르고 있다. 도내 정당들은 당원 모집과 당 조직 정비에 나서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도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추석연휴를 맞아 도지사 선거 후보는 물론 도의원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들의 얼굴알리기 등을 통해 선거국면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0월 중순·국민의힘 11월 초 윤곽=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원 지역 순회 경선에서, 강원 선거인단과 1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1차 슈퍼워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1차 슈퍼워크를 마치고 2주간 숨을 고른 뒤 오는 25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경선 일정을 재개한다. 이어 전북(9월 26일),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지역에서 순회 경선에 나선다. 민주당은 10월 3일은 인천 선거인단과 2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2차 슈퍼워크를 갖는데 이어,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나는 3차 슈퍼워크를 10월 10일 진행한다. 만약 10월 10일 3차 슈퍼워크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은 4~5일 후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도 막바지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14일 양일간 당원(20%)과 일반국민(80%)을 상대로 각각 여론조사를 벌인 뒤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 후보자를 선출한다. 1차 컷오프에선 12명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중 4명이 탈락한다. 2차 컷오프는

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최근까지 도지사 후보 진영마다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며 세 불리기에 집중했다. 도지사 후보 경선도 대선 경선처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로 뽑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원 확보 규모는 각 진영의 본선 경쟁력을 가늠할 주요한 잣대였다.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군 중 한 명인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자신이 모집한 당원 수(1만여명)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열기도 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에 도내에서 약 5만 명이 입당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

려진 가운데 A출마 예정자가 가장 많은 2만 40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 지경으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 했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직무대행 임명을 계기로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지난 9일 허향진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데 이어 제주 시 갑·을, 서귀포시 조직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당분간 도당을 이끌게 된 허 직무대행은 앞으로 당 쇄신과 함께 선거 체비로 전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기자



인기척에 놀란 참새들 12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들녘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이 벌벌 날아들며 먹다가 인기척에 놀라 다급하게 공중으로 날아 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6개 최종 선정

제주농가 로컬푸드 밥상 등 도, 총 17억여원 투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은 예산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격차 및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되고 있다. 도는 2015년부터 전략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17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중 6개 사업이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다. 6개 사업에는 17억 1900만원이 투자된다.

6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및 사업 타당성, 효율성 등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1차(서류심사) 및 2차(대면심사) 심사에 이어 한 달 동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거쳤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3~7일 전체회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한림읍 제주 농가 로컬푸드 밥상 ▷애월읍 심신활력 위한 공동체 조성 ▷구좌읍 해녀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환경면 환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 상품 활성화 ▷표선면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폐막

9~1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진행... 181개 업체 참여

제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가 관련 업계와 지자체,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폐막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라일보 등 주요 지역 언론사 공동 주최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관광산업의 선제적 대응'이란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01개 자치단체와 기관 등 전체 181개 업체 316부스가 참여했고,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전시장 내 부스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 및 체험활동이 진행됐으며 스마트관광 컨퍼런스와 관광업계 종사자·관광 실무자들을 위한 강연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관광홍보관을 운영,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제주 언택트 관광지 와 온라인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

나오'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 서응 속에 나흘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일 폐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홍보 부스를 열고, 제주삼다수 앱 가입시 여행용 파우치 증정 행사와 제주개발공사 SNS 채널 구독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펼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 어워드'가 진행됐다.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가 대상을 받았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어 인기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어렵고 힘든 관광산업에 조금이라도 활력과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박람회를 지향하려고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혁신적인 관광산업에 대비하는 준비된 박람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4·3트라우마센터 국립 승격 '청신호'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

제주4·3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법'은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

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연 면적 22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도시 기본관리계획 변경용역 착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9월 중에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725
 12일 17시 기준

추추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추석연휴 1주일(9. 17 ~ 9. 23)은 직계가족의 가정내 모임에 한해
 집중완료자 4명포함 시 8인까지 가능합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